종교가치 사회화 이끌 '종무행정' 필요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국문화관광硏, 연구보고서
〈코로나 이후 종무행정 방향〉
급격한 변화 속 종교역할 주목



종교가치 · 역할 요구됨에도
시대적 변화에 대응 미흡해
중장기적 방향서 대안 필요

코로나 사태 이후 급변하는 사회흐름 속에서 종교는 어떤 변화를 준비해야 하며, 정부의 종교 관련 정책은 또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탈종교화 가속화, 대국민 신뢰도 감소 등 종교계의 고민이 깊은 가운데 향후 종교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은 최근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종무행정 방향'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종무행정의 영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존 종무행정이 단순 종교활동 지원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며, 종교 본연의 가치를 도출하는 가운데 대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사회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우울과 갈등, 분열 등 다양한 문제가 급속히 확대되는 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 종교의 위상과 역할은 감소 추세를 밟고 있다.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집단'을 묻는 질문에 종교단체가 9개 기관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그에 대한 기대, 신뢰수치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는 종교기관을 신뢰하지 않은 대표적인 연령대라는 점에서, 종교의 미래는 낙관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 맞이한 뉴노멀 시대에서 새로운 갈등과 정신적 ·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종교의 보편적 가치가 주요한 강점이 될 수 있지만 정작 종교 스스로 사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보고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종교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요인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해 이를 극명하게 드러내 주목된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종교의 강점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정신적 기능, 대국민 영향력과 사회적 활동 영역에 있는 반면, 약점은 종교에 대한 국민신뢰 감소, 사회갈등 확대 가능성(종교적 특수성과 사회적 보편성의 대립), 사회변화 대응 미흡(보수성)으로 꼽았다.

또 종교가 가진 기회 항목은 스트레스와 갈등, 소외 등 현대사회 문제와 관련한 수요증가, 뉴노멀 시대 감소될 수 있는 인간성에 대한 성찰 기능, 코로나 블루 등 정신적 치유 수요의 증가로 나타났으며, 위협 항목은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여가활용방식의 다양화 등 일상에서의 경쟁분야 확대, 새로운 디지털환경 속 가치관과의 간극 등으로 분석됐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이후 종교적 역할에 대한 기대와 수요는 증가하지만, 종교 스스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도태될 위험성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종무행정의 중장기적 방향성 전환을 제시했다. 종교계 내부적인 성찰과 변화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정책의 일환에서 종교의 역량을 강화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국종교문화연구센터(가칭) 건립을 통한 종교관련 조사연구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종교적 가치의 사회적 구현 사업 △종교의 평화적 공존 모델의 가치발굴 및 확산 △종교문화활동 지원 등을 꼽았다. 동시에 종무행정에 이를 반영할 때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른 종무행정 범위 제한, 절대적 세계관인 종교의 특성상 갈등 · 분열 극대화의 위험성, 종교간 가치의 차이 및 비종교인의 종교지원에 대한 공감 부족 등 위협 요인을 파악한 가운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결국 코로나 이후 종무행정은 지속적인 연구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종무정책 방향 설정 △종교별 독립성에 기초하되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 △예술 · 인문 · 관광 등 영역과 종교를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 발굴 △종교문화에 대한 연구 · 홍보 · 교육 등 국민의 종교이해 기반 마련 △갈등 조정이 아닌 사전 예방 조치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김규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 "종교는 삶의 의미와 궁극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며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라며 "이러한 가치가 사회에서 구현될 경우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 구현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재 종교 활동에 대한 분석과 조사, 연구가 미흡해 적절한 정책개발과 계획수립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비대면, 뉴노멀, 4차 산업혁명, 저성장 사회 등 미래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종무정책 또한 새로운 미래에 대비해 방향성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구니스님 상장의례 모든 것

전국비구니회, 〈입적에서 다비까지〉 발간

규범 · 실용 갖춘 지침서
'비구니회원장'의 추진도



비구니스님 입적시 규범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변화한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비구니 상장의례 실행서가 발간됐다. 입적 후 3일간 진행되는 상장의례의 전반적인 절차와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담아 매뉴얼화했다는 점에서 비구니스님들의 상장례시 실용적인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최근 제12대 전국비구니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해 〈비구니스님 입적에서 다비까지〉를 발간했다. 이는 불교의례서를 전거(典據)로 하되, 현실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 장례준비부터 입적 후 상장례 진행과정과 장례 후 추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장례 실행서다. 책 발간을 위해 전국비구니회는 지난해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소장 수경) 주관으로 상장례연구회를 구성하고 1년간 연구 · 조사를 진행했다. 상장례연구회에는 수경 스님과 총무부장 보련 스님, 재무부장 지효 스님을 비롯해 오랜 세월 현장에서 스님장례에 참여해 온 조계종 연등회보존위원회 박상희 전문위원과 유재철 연화회 대표와 이진선 연구원이 참여했으며, 본각 스님과 조계종 비구니 어산종장 동희 스님, 전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이 자문을 맡았다.

책에는 장례를 치르게 될 상좌나 소임자가 챙겨야 할 내용은 물론, 입적 후 상장례 진행과정에서 3일장을 기준으로 일별 진행사항과 실무를 구체적으로 담아냈다. 특히 빈소와 분향소의 설치, 문도회의, 소임 구성, 입감과 상식, 대숙야와 영결식, 법구 이운, 다비 등이 총괄적으로 수록됐다. 장례명칭과 위패 및 명정 문구, 영결식장 현수막 문구 등 양식을 매뉴얼화했으며, 다양한 사례 사진을 함께 수록해 문중이나 사중 형편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록에는 영결식 자료집과 영결식 사회자 진행원고, 영결 법요, 다비 사회자 진행원고 등 실질적인 자료를 첨부해 실용성을 높였다.

무엇보다 이번 책 발간은 제12대 전국비구니회의 주력사업인 비구니스님의 복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스님 장례 지원을 복지의 종착점으로 보고, 앞으로 전국비구니회 차원에서 자신의 장례를 부탁할 연고가 없는 비구니스님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전국비구니회원장'도 새롭게 구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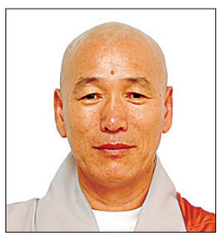
그 일환으로 비구니스님들을 위한 전용다비장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다비장 협약 사업'에 대한 소개도 책에 함께 실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입적에서 다비까지〉와 함께 임종과 조문, 49재까지 전 과정의 규범과 실무를 담은 〈염불의례집〉도 함께 발간했다. 송지희 기자

종단협 사무총장, 관음 · 원융 · 법상종 3파전

도각 · 진호 · 해월 스님 출사표
2월18일 이사회에서 추천확정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이하 종단협) 사무총장 지민 스님(삼론종)의 임기가 지난해 말 완료되면서, 차기 사무총장 소임을 어느 종단에서 맡게 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관음종과 원융종, 법상종이 차기 사무총장 후보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단협은 2월 18일 '2021년 제1차 이사회'에서 차기 사무총장 추천의 건을 다룬다. 이를 위해 1월 22일까지 사무총장 후보 접수를 진행한 결과, 부회장 종단인 관음종 총무부장 도각 스님과 이사종단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이사종단 법상종 해월 스님이 출사표를 던졌다. 종단협은 그동안 사무총장 자격을 상임이사 종단으로 제한해 왔지만, 지난 2017년 2월 일반이사 종단으로 확대했다. 前 사무총장 지민 스님은 이사종단에서 배출한 첫 사무총장이다.


도각 스님


진호 스님


해월 스님

차기 사무총장 추천방식은 후보 스님들의 공약 발표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투표 혹은 합의추대 형식으로 절차를 확정해 진행될 예정이다. 임기는 3년.

관음종 부회장 도각 스님(진주 불명사)은 2003년부터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상임이사로 활동해 왔으며, 2006년 진주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 2015년부터 종단협 상임이사 소임을 맡고 있다.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구로 원융사)은 2015년부터 원융종 총무원장 및 종단협 이사 소임을 맡아왔으며 2017년부터 대한불교원융종 법인 이사장 소임을 겸하고 있다.

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안성 쌍미륵사)은 2004년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거쳐 2005년부터 총무원장 소임을 맡았으며 2015년부터 대전교정청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올해 안성불교연합회장에 선출됐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디지털불교대 온라인 수강생 모집

3월 8일까지, 신도 전문교육 · 전문포교사 과정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강좌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운영하는 온라인 전문교육기관인 디지털대학이 신학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디지털불교대학은 3월 8일까지 일반인 및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도전문교육과정과 포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포교사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불교 A부터 Z까지 체계적인 공부의 시작'을 위한 신도전문교육과정은 불교 입문 강좌로 1년 2학기제로 운영된다. 3월 9일 개강해 3개월 동안 부처님 생애와 교리, 불교사의 이해, 불교수행의 이해, 불교문화, 금강경의 이해 등에 대해 배운다. 졸업생은 일반포교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19기 전문포교사과정은 전국의 포교현장에서 전법활동을 펼치고 있는 포교사들을 위한 과정으로 2년 4학기제로 포교스피치,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포교프로그램, SNS 포교방법론, 조직관리와 지도자론, 심리상담사 2급, 청소년명상힐링지도사 3급 등 포교활동에 체계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관심 있는 포교사는 디지털불교대학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노덕현 기자

한문으로 만나는 더 넓은 세상

2021년도 1학기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한문아카데미
기본·심화과정
연수생 모집

문의
· 동국대학교 충무로영상센터 본관 2층 202호
· 전화: 02-6713-5154, 5158
· 메일: hanmun@dongguk.edu
· 홈페이지: http://abc.dongguk.edu/academy

한문불전 역경인재 양성 전문기관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협력 교육기관

	월	화	수	목	금
기본과정	사십이장경	불교원전대독	맹자	구사론	불교한문법
	선암 스님	최종남	공근식	박인성	박영록
심화과정	금강경삼가해	문집선독	유불대론	기신론필삭기	고승비문
	이상하	선암 스님	성태용	대진 스님	박해당

■ 선발연수생
기본과정 혹은 심화과정의 선발전형 과정에 통과한 연수생

■ 일반수강생
기본과정에 한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원서 제출 후 등록

■ 수강료
선발연수생은 학기당 60만 원, 일반수강생은 과목당 20만원
수강료 할인 혜택 : 조계종 승려, 동국대 교직원 · 재학생 · 수료생, 타대학 재학생 · 수료생 등

■ 선발 연수생 전형
기본과정 :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심화과정 : 서류심사, 번역 필기시험, 면접전형
※ 출제범위 : 규봉 종밀 / 원각경대소석의초(권1)

■ 특전
선발연수생 : 성적 우수자 장학금 수여
조계종 승려 : 수강료 면제 · 기본과정 수료 시 3급 승가고시에서 교육 경력 2년 인정

● 모집기간 : 2021. 2. 1. 월 ~ 2. 19. 금
● 전형일시 : 2021. 2. 20. 토 10:30 ~ 15:00
● 합격발표 : 2021. 2. 22. 월 14:00 (예정)
● 수업기간 : 2021. 3. 2. 화 ~ 6. 14. 월 (15주)
● 수업시간 : 18:30 ~ 21:30 (과목당 3시간)

코로나 19의 영향에 따라 입학 전형 및 강의가 실시간 비대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한문아카데미